

## 기혼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utual Support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in-law and their Mother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金 順 基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Soon Ki, Kim*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劉 永 珠

*Dept.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Prof. : Young Ju, Yoo*

부모-자녀관계의 주된 역할자인 기혼여성과 어머니(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간에 교류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를 조사하여 봄으로써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였으며,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지지의 제공보다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간의 지지를 비교해 본 결과, 정서적 지지는 제공과 수혜 모두 시어머니보다 혈연관계인 친정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많이 교류되고 있으며, 경제적, 서비스 지지는 제공은 시어머니에게 많이 하고 수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친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시가에는 봉사하는 '친정지원, 시가봉사'의 이중적인 가족구조는 기혼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되어온 시부모부양의 의무를 계속 가질 뿐 아니라 친정에도 봉사하며 양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 I. 서 론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계속되는 관계 중의 하나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우기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과 환경개선 등으로 사망율이 감소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성인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그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또한 서로 다른 세대간의 관계로서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이다(김재은, 1987). 출생시의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며 부모로부터 支持(support)를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율은 낮아지는 반면 부모는 노쇠해짐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서 支持의 提供과 受惠의 방향에 전환이 오게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父系直系家族을 이상형으로 추구하여 왔으므로 성인자녀는 노부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온 산업화, 도시화는 擴大家族에서 核家族으로 가족구조를 변화시켰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전통적인 부계가족부양의 체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에 (Shanas, 1979; 장선주, 1989. 재인용) 의하면 자녀들이 노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myth)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성인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도움을 받는 노부모는 극소수이며 제공자와 수혜자로서 자녀들과 도움교환을 함으로써 노부모와 자녀들은 서로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개의 가정에서 이러한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상호작용은 주로 여성들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父系直系家族을 理想型으로 여겨온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주된 부양자는 며느리였으며 딸은 出嫁外人으로 시집에 들어가 엄격한 시집살이를 하고 親家방문시는 반드시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형식과 예의를 갖추어야 했기에 親家와는 자유로이 접촉할 수 없었으므로 親家와의 관계를 빈번히 그리고 친밀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엔 가족구조가 父系直系家族에서 核家族으로 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딸과 親父母관계도 밀접해지고 있다. 이것은 아들과 함께 부모의 부양에 공유적인 책임을 갖는 며느리는 의무감과 규범적인 관계인 반면 딸은 애정적인 유대가 강한 특성이 있어 정서적인 면에서 媿家보다 오히려 親家와의 접촉이 더 활발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경원, 1989; 이경희, 1988; 이광자, 1989)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媿家와 親家の 비교 연구를 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반적인 친족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와 단순히 接觸頻度만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성인자녀-부모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데 있어 미흡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 성인자녀와 부모간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위한 방법으로 성인자녀-부모관계에서의 갈등(고정자, 1989; 신일진, 1991), 애착(유은희, 1991), 결속도(최정혜, 1992), 부양(김송애, 1991; 김태현, 1981; 서전, 1991; 송현애, 1988), 지지관계(고선주, 1990; 장선주, 1989)등의 세분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위의 연구들중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가 성인자녀-부모관계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성인자녀-부모간에는 밀접한 유대관계와 활발한 교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인 지지관계 연구(고선주, 1990; 장선주, 1989)들을 볼 때 성인자녀-부모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지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관계의 主 역할자인 기혼여성과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지지제공과 수혜의 경향을 알아보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제공하고 수혜받는 지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혼여성과 어머니와의 관계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됨으로써 성인자녀들은 노인이 된 부모를 최소한 한 분은 가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자녀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부양의 책임을 공유할 형제자매는 점차로 적어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주된 부양자인 여성은 중년이 되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아야 하며, 더우기 자녀세대에게도 끊임없는 원조를 제공해야 하므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혼여성에게 부모 부양이 반드시 부담

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어머니 부양에 따른 딸의 비용과 이익 연구에서 딸들은 어머니 부양에 대해서 낮은 비용을 보고한 반면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느낀다고 하였다(Shin, 1989; 고선주, 1990. 재인용).

한국인구보건원(1985)에서 자녀들에게 노인을 모시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며느리와 기혼 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가 각각 75.7%와 78.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은 각각 6.1%, 6.0%로 나타나 노인은 가정에서 의존적인 거주장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최신태(1982)의 연구에서도 시어머니와 동거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점으로 자녀를 돌보아 준다가 42%, 집안일을 도와준다가 33%로 나타나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이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장선주, 1989. 재인용).

이러한 결과를 통해보면 기혼여성과 어머니의 관계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루어 온 것처럼 부모 부양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지제공, 수혜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성인자녀-부모간 지지연구 동향

支持體系(support system)란 생활양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행동이나 사물을 주는 것 또는 받는 것 혹은 주고 받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사회적 지지의 4개 하위체계로 나눌 수 있다(Lopata, 197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家族內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는 제외하고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상호지지의 방향에 따라 제공과 수혜로 구분하였다.

### 1) 정서적 지지

정서라함은 감정적 만족(feeling)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메카니즘적 구실'을 하는 것(고정자, 1989)으로 가족기능의 본질은 애정에 의거한 정서적 역할수

행에 있으며 이것은 어떤 공적 기관에 의해서도 보완될 수 없다(김태현, 1981).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세대간 관계가 강해지고(최정혜, 1992),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더 많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고선주, 1990).

부모-자녀관계를 형제관계나 다른 친족과의 관계와 비교한 Lopata(1978)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정서적인 지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母女관계에서 애정이 높을수록 자식이 느끼는 의무감도 높다고 하여(Finley, Roberts, & Banahan, 1988)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고선주, 1990).

정서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여러가지 개념들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를 크게 분류해 보면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 지지나 정서적 유대, 친밀감 등의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김경원, 1989; 최 재석, 1975; Aldous, Klaus, Klein, 1985; Belsky & Rovine, 1984; Lang & Brody, 1983; Walker & Thompson, 1983), 심리적 복지나 士氣의 개념으로 부모세대에 관심을 두고 접근한 연구(Bankoff, 1983; Lee, 1980; Scott & Roberto, 1987; Wood & Robertson, 1978),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나 책임감으로 파악하려한 연구(Finley et al, 1988; Matthews & Rosner, 1988)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위의 여러 연구들이 개념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성인자녀-부모관계의 정서적 측면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서적 지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선주, 1990).

### 2) 경제적 지지

母女간의 경제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로부터의 지지보다는 노인 부양이라는 의미에서 어머니에 대한 지지가 더 관심을 받아온 영역이다.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한 자녀가 있는 부부는 그들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의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김태현, 1981. 재인용) 기혼여성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완전히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현재의 노인세대가 스스로 노인기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인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볼 때 경제적 지지도 성인자녀-부모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선주, 1990).

경제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보면 Cheal(1983)은 경제적 지지를 물품과 서비스/금전으로 나누어서 자원의 전이만을 연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김경원, 1989; 이동원, 1984; 이효재, 1971; 최재석, 1975; Lee & Ellithorpe, 1982)들이 경제적 지지를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영역 중 일부로서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면 부모세대가 수혜자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Cheal의 연구(1983)에서 보면 물품과 서비스의 구입은 중년세대보다 젊은 세대(25세 이하)와 노인세대(65세 이상)가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전적인 선물의 경우는 오히려 젊은층이 수혜자였으며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들이 주택자금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이효재, 1971) 노인세대를 무조건 수혜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상호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선주, 1990).

### 3) 서비스 지지

기혼여성과 어머니간의 서비스 지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리적인, 身體的 노화로 인하여 가사활동에 도움받기를 원하고 며느리와 딸의 입장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로부터 부족한 일손의 도움을 받고자 하므로 서비스 지지는 양측 모두에게 당연한 문제이다.

서비스 지지에 관한 연구는 노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지 연구(Brody & Schoonover, 1986; Cicirelli, 1984; Finley et al, 1989; Lang & Brody, 1983; Stoller, 1983)와 성인자녀세대가 가사나 자녀양육에서 받는 도움을 살핀 연구(이동원, 1984; 최재석, 1975; belsky & Rovine, 1984)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지지 접근방법에서도 노부모에게 제공되는 援助의 時間으로 지지 내용을 살펴본 연구(Brody & Schoonover, 1986; Stoller, 1983)와 구

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접근한 연구(Cicirelli, 1984; Lopata, 1978)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선주, 1990).

외국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서비스 지지 연구가 이처럼 다양한데 국내에서의 서비스 지지 연구는 단순히 가사일을 서로 도와 주거나(최재석, 1975) 일손에서의 도움(이동원, 1984)등으로 언급되고 있어 너무 단순화한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정교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 III. 연구문제

1-1. 기혼여성과 시어머니와의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각 영역에서 지지의 제공과 수혜는 차이가 있는가?

1-2. 기혼여성과 친정어머니와의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각 영역에서 지지의 제공과 수혜는 차이가 있는가?

2. 기혼여성과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는 차이가 있는가?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중에서 배우자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모두 생존<sup>1)</sup>해 계시며 만 6세이하의 자녀<sup>2)</sup>가 있는 中産層<sup>3)</sup> 이상의 核家族<sup>4)</sup>의 주부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1)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로 제한 했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교환되고 있는 시어머니·친정어머니와의 지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모두 생존해 계신 경우로 제한하였다.
- 2) 기혼여성의 어머니와의 경제적, 서비스 지지 수혜 측정영역에 손자녀 돌보기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 3) 1985년 3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중산층 육성대책」을 마련하면서 中産層의 기준으로 설정한 4가지 기준을 기초로 하였다.
  - (1) 최저생계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 (2) 자기집이 있거나 최소한 독채전세에 거주하여 주거가 안정
  - (3) 常用雇傭 또는 자영주로 직업이 안정
  - (4) 고졸이상의 학력.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 명)

변수	집 단	N(%)		평균(S.D) 범위	변수	집 단	N(%)		평균(S.D) 범위
가족 수입	100만원이하	50( 24.4)		196.65만원 (128.99) 80-910만원	본인 연령	29세이하	42( 20.5)		32.35세 (3.04) 23-41세
	101-150만원	59( 28.8)				30-34세	111( 54.1)		
	151-200만원	44( 21.5)				35-39세	47( 22.9)		
	201-250만원	17( 8.3)				40세이상	5( 2.4)		
	251-300만원	16( 7.8)				계	205(100.0)		
	301만원이상	19( 9.3)							
막내 자녀 연령	12개월 미만	12( 5.9)		40.61개월 (22.61) 3개월-만6세	교육 수준	고 졸	80( 39.0)		14.74년 (2.65) 12-24세
	만 1 세	40( 19.6)				초·전문대졸	20( 9.8)		
	만 2 세	33( 16.1)				대학졸	77( 37.6)		
	만 3 세	18( 8.8)				대학원이상	28( 13.7)		
	만 4 세	24( 11.7)		자녀 수	1명	58( 28.3)		1.78명 (0.78) 1-5명	
	만 5 세	48( 23.4)			2명	138( 67.3)			
	만 6 세	30( 14.6)			3명이상	9( 4.4)			
	계	205(100.0)			계	205(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의 특성

(단위 : 명)

변수	집 단	시어머니의 특성			친정어머니의 특성		
		N(%)	평균(S.D)	범위	N(%)	평균(S.D)	범위
어머니 연령	54 이하	12( 5.9)			22( 10.7)		
	55-59 이하	56( 27.3)	62.31세	48-81세	67( 32.7)	61.08세	51-78세
	60-64 이하	70( 34.1)	(5.96)		63( 30.7)	(6.02)	
	65-69 이하	44( 21.5)			32( 15.6)		
	70 이상	23( 11.2)			21( 10.2)		
계	205(100.0)			205(100.0)			
변수	집 단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변수	집 단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N(%)	N(%)			N(%)	N(%)
어머니 결혼 지위	유배우	148( 72.2)	147( 71.7)	어머니 취업 상태	취 업	28( 13.7)	50( 24.4)
	무배우	57( 27.8)	58( 28.3)		취업 비취업	177( 86.3)	155( 75.6)
	계	205(100.0)	205(100.0)		계	205(100.0)	205(100.0)
어머니 경제적 형편	아주 넉넉함	20( 9.8)	13( 6.3)	어머니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함	19( 9.3)	5( 2.4)
	넉넉한 편	58( 28.3)	79( 38.5)		건강 건강함	88( 42.9)	72( 35.1)
	보 통	97( 47.3)	86( 42.0)		보 통	57( 27.8)	74( 36.1)
	어려운 편	27( 13.2)	23( 11.2)		약간 불편	36( 17.6)	45( 22.0)
	아주 어려움	3( 1.5)	4( 2.0)		매우 불편	5( 2.4)	9( 4.4)
계	205(100.0)	205(100.0)	계	205(100.0)	205(100.0)		

1) 조사대상자의 특성<sup>5)</sup>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자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의 특성<sup>6)</sup>

조사대상자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4)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 서비스 지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오류(bias)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핵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으나 조사대상자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지지척도의 정의 및 구성

#### (1) 정서적 지지

정서적 지지는 성원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고선주, 1990). 이는 고선주(1990), 이경희(1988), 장선주(198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母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뢰, 존경, 애정, 이해, 솔직함, 포용(잘못을 감싸주는 것)과 상담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 (2) 경제적 지지

경제적 지지란 생활비, 용돈, 선물교환등 금전·물질과 관련된 재정적인 상호원조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경제적 지지는 Lopata의 연구(1978)와 고선주(1990), 김경원(198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정기적인 혹은 응급상황에서의 금전적 도움, 물품의 선물이나 구입을 도와 주는 것, 의료비 지불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3) 서비스 지지

서비스 지지란 성원간의 개인적인 보호와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상호원조로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고선주, 1990). 서비스 지지는 고선주(1990), 이광자(1989), 장선주(1989)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등 일상적인 가사일 돕기, 일손부족시와 감장 담그기 등의 돕기, 손자녀 양육의 도움으로 구성하였다.

### 2) 측정도구의 검증

이 척도의 내용에 관한 안면타당도는 지도교수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가족학연구자 3인에게서 검증받았으며, 또한 요인분석을 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에 관한 Cronbach'  $\alpha$ 점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조사는 1992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中産層以上の 핵가족의 주부를 표집하기 위하여 신흥동, 회기동의 사립 유치원 2곳과 동교동의 국민학교

1곳의 1학년중 2학년의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고, 또한 연구자가 편의표집을 하였다.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는 대상을 통제하지 않고 전수표집을 하였으므로 회수되지 않은 것과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이 많아 배부한 질문지수(500부)에 비해 실제 사용율(41%)이 낮았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통계처리는 SAS PC(Statistical Analysis System)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시어머니·친정어머니)와 기혼여성간의 지지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값, 범위를 구하였고, 각 지지영역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지지영역별 지지제공과 수혜의 비교는 paired-t 검증을 하였다.

## V. 결과 및 해석

### 1. 기혼여성과 시어머니간 지지의 일반적인 경향 및 지지제공과 수혜의 비교

전체 응답자의 시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제공은 평균 13.89점(범위: 4점~20점), 지지수혜는 평균 13.00점(범위: 4점~20점)으로 중앙값인 12점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많은 지지제공을 하고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 제공과 수혜를 비교해 본 결과 지지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 $t=4.07, p<.001$ ).

경제적 지지제공은 평균 8.86점(범위: 4점~20점), 수혜는 평균 6.88점(범위: 4점~20점)으로 지지제공, 수혜가 모두 낮은 편이며, 경제적 지지의 제공과 수혜를 비교해 보면, 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5.21, p<.001$ ).

서비스 지지제공은 평균 13.71점(범위: 5점~25점), 수혜는 평균 10.71점(범위: 5점~25점)으로 지지제공과 수혜 모두 낮은 편이다. 제공과 수혜의 비교결과 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7.41, p<.001$ ).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 세 영역에서 모두 지지의 수혜보다 제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만을 조사대상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제공하는 지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사회관습적 기대반응(reactivity)이 영향을 미쳐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지지수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로 시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며느리에게 제공하는 지지를 측정하여 비교해 본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지지영역별 상관관계 표 4를 보면 정서적 지지제공과 수혜의 상관관계가  $r = .65(p < .001)$ 로 다른 지지 영역의 제공과 수혜의 상관관계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조사대상자의 60.5%가 결혼한지 6~10년이 되었으므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핵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경제적인 면이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는 적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대부분의 지지영역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 시어머니-며느리간 지지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기혼여성과 친정어머니간 지지의 일반적인 경향 및 지지제공과 수혜의 비교

전체 응답자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 제공은 평균 16.16점(범위: 4점~20점), 수혜는 평균 16.88점(범위: 4점~20점)으로 제공하고 수혜 받고 있는 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제공과 수혜를 비교해보면 제공보다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4.01, p < .001$ ). 이것은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수혜보다 제공이 많았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경제적 지지제공은 평균 7.53점(범위: 4점~19점), 지지수혜는 평균 8.71점(범위: 4점~20점)으로 지지의 제공, 수혜 모두 낮은 편이며, 제공과 수혜를 비교해 본 결과, 제공이 수혜보다 적었으며( $t = -3.17, p < .01$ ) 모든 조사대상자중 경제적 지지 영역의 최고점인 20점을 받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 친정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지의 제공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지지제공은 평균 10.75점(범위: 5점~25점), 수혜는 평균 14.13점(범위: 5점~25점)으로

표 3. 기혼여성-시어머니간 지지의 일반적인 경향 및 제공-수혜의 비교 (N=205)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중앙값	t 값
정서적 지지 제공	13.89	3.54	4-20	12	
수혜	13.00	3.86	4-20	12	4.07***
경제적 지지 제공	8.86	4.12	4-20	12	
수혜	6.88	3.73	4-20	12	5.21***
서비스 지지 제공	13.71	4.95	5-25	15	
수혜	10.71	5.33	5-25	15	7.4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기혼여성-시어머니간 지지의 상관관계 (N=205)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서비스 지지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정서적 지지 제공		.65***	.05	.17**	.19**	.21**
수혜			.16	.34***	.06	.28***
경제적 지지 제공				.04	.35***	.39***
수혜					.20**	.46***
서비스 지지 제공						.36***
수혜						

\* $p < .05$  \*\* $p < .01$  \*\*\* $p < .001$

지지제공은 상당히 낮고 수혜도 비교적 낮은 편이며 제공과 수혜를 비교한 결과, 제공보다 수혜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t = -7.63, p < .001$ ).

친정어머니와 딸간의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는 시어머니-며느리간의 관계와는 반대로 세 영역에서 모두 지지의 제공보다는 수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中産層을 대상으로 친족관계를 연구한(이광자, 1989) 결과 우리나라 도시 중산층 핵가족은 雙系的인 친족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친정으로부터는 지원을 받고 시가에-봉사하는 '친정지원 시가봉사'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지지영역별 상관관계 표 6을 보면 정서적 지지제공과 수혜의 상관관계가  $r = .60(p < .001)$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지제공과 서비스 지지제공은 정서적 지지제공, 수혜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원조와 접촉이 이들간의 친밀감의 예측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Walker와 Tompson의 연구(1983; 고선주, 1990. 재인용)와 일치하고 있다. 즉 정서적으로 친정어머니와 밀접하다고 해서 더 많은 경제적 지지와 서비스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 3. 기혼여성과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간 정서적 지지의 제공, 수혜의 비교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제공의 평균은 13.89점,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의 평균은 16.16점으로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에게 더 많은 정서적 지지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0.26, p < .001$ ).

정서적 지지수혜 또한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평균 13.00점,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 평균 16.88점으로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에게서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3.94, p < .001$ ).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신뢰, 존경, 애정, 이해, 솔직함, 포용과 상담을 측정하였으므로 혼인으로 맺어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혈연적인 관계인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제공과 수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 4. 기혼여성과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간 경제적 지지의 제공, 수혜의 비교

경제적 지지제공은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표 5. 기혼여성-친정어머니간 지지의 일반적인 경향 및 제공-수혜의 비교 (N=205)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중앙값	t 값
정서적 지지 제공	16.16	2.73	4-20	12	
수혜	16.88	2.94	4-20	12	-4.01***
경제적 지지 제공	7.53	3.56	4-19	12	
수혜	8.71	4.33	4-20	12	-3.17**
서비스 지지 제공	10.75	4.82	5-25	15	
수혜	14.13	6.04	5-25	15	-7.63***

\* $p < .05$  \*\* $p < .01$  \*\*\* $p < .001$

표 6. 기혼여성-친정어머니간 지지의 상관관계 (N=205)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서비스 지지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제공	수혜
정서적 지지 제공		.60***	.05	.23***	.12	.23***
수혜			.01	.20**	-.23	.25***
경제적 지지 제공				.10	.37***	.25***
수혜					.33***	.42***
서비스 지지 제공						.34***
수혜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간의 지지의 제공, 수혜 비교

(N=205)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제공	13.89	3.54	16.16	2.73	-10.26***
수혜	13.00	3.86	16.88	2.94	-13.94***
경제적 지지 제공	8.86	4.12	7.53	3.56	4.76***
수혜	6.88	3.73	8.71	4.33	-5.36***
서비스 지지 제공	13.71	4.95	10.75	4.82	8.50***
수혜	10.71	5.33	14.13	6.04	-6.70***

\*p<.05    \*\*p<.01    \*\*\*p<.001

평균 8.86점,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 평균 7.53점으로 나타나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지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76, p<.001$ ).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경제적 지지수혜의 평균은 6.88점,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 평균은 8.71점으로 나타나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5.36, p<.001$ ).

#### 5. 기혼여성과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간 서비스 지지의 제공, 수혜의 비교

서비스 지지제공은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평균 13.71점,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 평균 10.75점으로 나타나,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서비스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8.50, p<.001$ ).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 서비스 지지수혜의 평균은 10.71점,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의 평균은 14.13점으로 나타나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로부터 서비스 지지를 많이 수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6.70, p<.001$ ).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정서적 지지는 시어머니-며느리관계보다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 제공과 수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지와 서비스 지지의 제공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많이 하고, 수혜는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에게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을 많이 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느끼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생

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을 조사 연구한 이경희(1989)의 연구에서 자녀를 출가시키기 전까지는 사교적 관계와 물질·도구적 지지의 수혜, 심리적 지지는 친정파, 의례적 관계와 물질·도구적 지지의 제공은 시가와 가장 많이 상호작용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 VI. 결 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혼여성-어머니(시어머니·친정어머니)와의 지지관계를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 기혼여성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와의 정서적 지지는 강하게 나타나 정서적인 지지는 다른 공적 지지체제로 대체될 수 없으며, 성인자녀-부모관계에서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Shanas, 1979)고 볼 수 있다.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는 지지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는 지지의 제공보다 수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지지를 비교한 결과, 정서적 지지제공, 수혜 모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연관계인 친정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지지와 서비스 지지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어머니-며느리관계에서는 지지수혜 보다는 제공이 많았으며 친정어머니-딸관계에서는 제공 보다는 수혜를 많이 받았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지지를 비교해 보면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지와 서비스 지지를 제공하고, 수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정어머니로부터는 경제적, 서비스 지지를 받고 시가에는 봉사하는 “친정지원 시가봉사”(이광자, 1989)하는 이중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인 가족구조는 기혼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과되어온 시부모 부양의 의무를 계속 가질 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봉사하며 양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부담 관계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과 어머니(시어머니·친정어머니)와의 지지 관계를 조사함에 있어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기혼여성과 어머니와의 지지를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파악하였으나 각 지지영역의 심층적인 연구는 미비하였다. 예를들어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인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지법만으로 측정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며 면접법등의 다른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경제적 지지, 서비스 지지도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설문지와 병행하여 checklist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보다 정교한 조사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여성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교환되고 있는 지지제공과 수혜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기혼여성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결과 성인자녀-어머니간의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가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제공하고 수혜받는 지지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그 원인규명과, 지지의 제공과 수혜에 차이가 남으로써 파생될 수 결과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특정집단만을 연구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한 빈곤계층이나 취업여성, 과부기 여성에 관한 연구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시부모 동거가족이나 친정부도 동거가족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비교를 하여봄으로써 지지관계의 변화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혼여성과 어머니의 지지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상의 제언부분에서 지적했듯이 각 지지영역마다의 심층연구와 또한 순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와 ‘The Family’보다는 ‘Families’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리만큼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제도적,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고선주(1990).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모친간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고정자(1989). 한국 도시주부의 고부 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대구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기혼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관한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재은(1974, 1987). 한국 가족의 심리-가족관계 및 집단성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6)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7).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출판국.
- 8) 서 전 (1991). 중년기가족의 노부모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송현애·김순옥(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 10) 신일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와의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